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14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연중 제 14주일 ( 23. 7. 9.)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서는 작은 이들에게는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약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과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널리 전하도록 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 9,9-10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0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8,9.11-13 ):

형제 여러분, 9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13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 복음( 마태복음 11,25-30 ):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 만날 수 있는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소서.

2.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이 고통을 이겨 내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마침내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성체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337 (미사시작)

봉헌 : 340 (봉헌)

성체 : 344 (영성체)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 : 82 (주 찬미)

♣ 7,8월 휴가철 관계로 각종 모임 없습니다.

♣ 다음 주일(16일), 대구교구 임종욱 바오로 신부님 오셔서 함께 미사 집전해주십니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46.10 • 교무금 € 0.00